

## “나의 노래는 소통의 수단, 나눔의 동사(動詞)이다”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가게 초대점장 가수 강산에

가수 강산에가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운동을 실천하고있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난 11월 9일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를 열었다.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음악인들이 이동판매차량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의 일일 명예점장이 되어 작은 콘서트와 함께 재활용물품 등을 판매하고 개인소장품도 즉석에서 경매하는 행사이다. 그 첫 번째 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한 가수 강산에를 만나 나눔과 희망의 노랫소리를 들어본다.



“헌 물건엔 새 생명을, 이웃엔 희망을” 모토로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10월 발족후 현재 전국에 31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름다운가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을터. 그래서 아름다운가게는 매장이 없는 전국 방방곳곳으로 시민의 부름을 받아 찾아가는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의 재순환과 나눔의 릴레이가 이어지는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이 가게는 트럭을 멋진 매장으로 꾸미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나타나는 즐거운 가게이다.

### 이동상점과 문화의 만남,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

지난 11월 9일에는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가 국민대학교 교정에 나타났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 아니 일일점장과 함께였다. 독특하고 재미난 가게라는 특성에 딱맞는 튀는 헤어스타일의 일일점장은 바로 가수 강산

에. 게다가 일일점원으로는 강산에의 ‘음악적 아우’인 가수 윤도현과 김C까지 가세를 하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진정한 나눔은 시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 아닐까요? 자원봉사자들의 따스한 미소와 함께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이 좋아서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 일일점장으로 기꺼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동상점과 문화의 만남을 컨셉으로 한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가게’의 첫 번째 음악인으로 선정된 강산에의 말이다. 그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박행진을 이어온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였지만, 이날은 인기있는 가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탓인지 더욱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었다.

11시 오픈을 하며 세운 목표액은 50만원, 강산에와 그 아우들이 노래공연을 펼치고 사인CD 증정 등의 적극적인 ‘호객’ 활동과 즉석에서 강산에의 선글라스, 의류 등의 애장품을 경매하는 이벤트 등을 실시한 덕분에

“ 그의 음악과 노랫소리는 내지르되  
 행동할 줄 모르는 명사(名詞)가 아니라,  
 우리사는 세상의 막힌 붓물을 트게 만들고,  
 나눔과 사랑, 행복을 흐르게 만드는 동사(動詞)이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로 날아오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은빛 연어처럼...”



에 이날 하루 최종 수익금은 목표액을 거뜬히 넘어선 94만원이었다. 이 수익금은 모두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되었다.

“목표를 달성한 것도 기쁘지만, 아름다운가게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손님들과 음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잔뜩 무언가 산듯한 느낌, 참 좋네요.”

**내 안에서 나를 찾고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자유인, 강산에**

이날 장사꾼 못지 않은 '수완'을 보여준 강산에에 대해 어떤 이들은 아직도 강한 내지름만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2002년 5년만에 새음 반을 들고 2천년대에 연속룩한 강산에는 이제 내지름보다 즐거운 흥얼 거림이 더 어울리는 기수로 다가온다. 그 음반의 타이틀이 바로 '강영 곶'이라는 본명을 내건 것처럼 강산에는 힘있는 목소리만 빼고는 더욱 솔직하고, 자유롭고, 부드러워졌다.

“그간 사막 등 여러 곳을 다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며 제 스스로를 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음악은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하고, 뮤지션의 삶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게 음악은 동시대인들과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관객과의 관계도 저는 부르고 듣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입니다.”

이날의 즐거운 장터처럼 강산에는 요사이 즐거운 흥얼거림과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현장에서 자주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래를 부르고 듣는 행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듯, 그의 삶과 노래도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찾고, 사람과 이웃을 만나 노래를 나누고 진심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바로 우리와 동시대인으로 노래하는 가수 강산에다.

이제 그의 음악과 노랫소리는 내지르되 행동할 줄 모르는 명사(名詞)가 아니라, 우리사는 세상의 막힌 붓물을 트게 만들고, 나눔과 사랑, 행복을 흐르게 만드는 동사(動詞)이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로 날아오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은빛 연어처럼...